

# 취업 유리한 보건계열 지원 쏠림 여전

### 전문대 수시 1차 모집...광주 4.2대 1·전남 2.3대 1

### 광주보건대 물리치료과 경쟁률 24.5대 1 '최고'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일부 학과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간호학과·응급구조과·물리치료과 등 일부 학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았다.

수험생 선호, 보건계열 몰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9일 내놓은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1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국 134개 전문대의 평균 경쟁률은 6.3대 1로, 11만 3697명 모집에 71만 7853명이 지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전년도에 견줘 3만 7226명이 늘었다. 다만, 경쟁률은 수시모집 인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7대 1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광주보건대 4개 대학에서 3710명을 뽑는데 1만 5413명이 지원,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9개 전문대학이 6320명을 모집하는데 1만 4270명의 지원자가 응시원서를 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았던 학과는 취업에 유리한 보건계열 학과로, 광주보건대 물리치료과·동강대 응급구조과 등은 경쟁이

열렸다.

광주보건대 물리치료과는 8명을 뽑는 정원내 전형에 196명이 지원, 24.5대 1로 광주·전남 전문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건대 응급구조과도 17명을 모집하는 데 314명이 몰려 18.5대 1을 기록했고 치위생과도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보건대는 광주·전남 전문대 경쟁률 상위 10개 학과 중 4개가 포함됐다.

동강대 응급구조과도 22명을 모집하는데 239명이 원서를 내 1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경쟁률 상위 10개 학과에 포함됐다.

'유턴족'들 인기학과에 몰려=경쟁률이 높은 학과 대부분은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족'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2012년~2016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문대학 유턴 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에 입학한 학

### 201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모집(1차)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지역	2017학년도		전년대비 증감 현황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지원율
광주	3,710	15,413	4.2	▼903
전남	6,320	14,270	2.3	▼101
전국	113,697	717,853	6.3	▲37,226

### 2017학년도 광주·전남 전문대 주요학과 수시 모집(1차) 현황

학교	학과명	정원내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8	196	24.5
	응급구조과	17	314	18.5
	응급구조과	22	239	10.9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100	825	8.3
	간호학과	100	825	8.3
조선이공대학교	자동차과(주)	62	492	7.9
	보건이료행정과(주)	22	163	7.4
전남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43	248	5.8
	자동차과	29	146	5.0
전남도립대학교	자동차과	29	159	5.5
	소방안전관리과	29	122	4.2

생은 올해까지 6412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유턴 입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학과는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등으로 이들 학과의 지난해 취업률은 81~84%에 이른다.

이런 추세는 광주·전남도 확연했다. 광주보건대의 경우 올 들어서만 14명이 4년

제 일반대학을 다니다 물리치료과·치위생과·간호학과에 재입학했고 올해 조선간호대(간호학과 4년제·32명), 동강대(자동차과 6명) 등으로의 재입학도 많았다. 조선이공대 생명환경화공과에도 올해 37명의 '유턴족'들이 몰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대 총장 선거

### 오늘 최종 3인 결정

전남대 20대 총장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 3인'이 20일 결정된다.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5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를 진행한다. 정책평가 대상자는 기호순으로 정성창(59·경영학부), 윤성석(59·정치외교학과), 허민(55·지구환경과학부), 이병택(59·신소재공학부), 정병석(58·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이들은 이날 교수(166명)·직원(19명)·조교(3명)·학생(3명) 등 19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밝히고 평가를 받는다.

선정관리위원회는 이후 압축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평가단을 제외한 1800여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현장평가(25일)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최종 선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앞 집회에서 이대교수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특혜입학, 비리해명'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 대학 최경희 총장은 이날 학내 분규와 '최순실 게이트'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연합뉴스

### '이화여대 특혜 논란' 최경희 총장 사임

### 교수 100여명 개교 이래 첫 시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이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19일 전격 사임했다.

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이 대학 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한지 83일, 설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총장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한 지 77일만이다. 이날 대학 본관 앞에서 펼쳐진 시위에는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

했다. 이대 교수들이 집회를 연 것은 1886년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임을 알리면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으로 시작된 이번 학내 사태로 인해 구성원들이 타는 분열의 길에 서지 않고 다시 화합과 신뢰로 아름다운 이화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총장직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3, 해질 17:51, 달돋이 21:34, 달지름 10:55

도심 가을빛 환연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	구름량	기온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14/25	보성	구름많음 11/22
목포	구름많음	15/23	순천	구름많음 15/24
여수	구름많음	17/22	영광	구름많음 11/24
나주	구름많음	12/25	진도	구름많음 14/22
완도	구름많음	15/23	전주	구름많음 13/25
구례	구름많음	11/24	군산	구름많음 13/24
강진	구름많음	13/23	남원	구름많음 11/25
해남	구름많음	12/23	속산도	구름많음 16/20
장성	구름많음	10/24		

지역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동~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동~동	1.0~1.5

목포	간조	만조
여수	09:53	04:48
	22:28	17:29
여수	05:21	11:57
	17:55	--:--

주간 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기온	16/21	16/23	14/20	11/20	11/20	11/20	11/20

### "송정역 주변 교통혼잡 가장 불편"

### 광주시 설문조사...이용객 40%가 20·30대

광주송정역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역 주변의 교통혼잡'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공간의 부족과 연계 대중교통 부족도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광주송정역 이용객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송정역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다.

광주송정역은 20·30대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39.9%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 30대(22.7%)와 40대(15.2%), 50대(10.8%) 순이었다. 이용객의 53.7%는 광주시민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33.3%)과

학생(32.1%)이 주를 이뤘다.

광주송정역을 이용해 서울로 가는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3.7%), 충남(9.5%), 전남(8.2%) 순이었다. KTX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족·친지·지인 방문(39.9%)이 가장 많았으며 ▲출장 등 업무(25.8%) ▲여행(16.1%) 순이었다.

송정역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교통수단 이용정보 부족(46.6%)을 지적했으며 ▲연계 대중교통 수단 부족(22.1%) ▲교통비 과다(13.7%)등도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법원 "고흥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

고흥축협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형연)는 지난해 3월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17표 차이로 낙선한 김모씨가 고흥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장 신모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업을 경영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1811명이 투표했는데 이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

며 "특히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17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기본 이념인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어 조합장 당선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제28회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 진도에서 개최됩니다.

2016. 10. 25.(화) ~ 10. 27.(목) 진도 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3일간)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진도군체육회, 전남회원 종목단체



